지방선거 D-12

광주·전남 초반 판세

기초단체장 우리 8곳 민주 15곳 우세 장담

7~8곳 초경합…8곳 무소속 우위 주장
광주·전남지사 민주 "독주" 우리 "추격"

5·31 지방선거 선거운동 개시와 함께 여야가 정치적 명운을 건 13일간의 열전(熱戰)에 돌입하면서 초반 판세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광주·전남에서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은 서로 승리를 장담하고 있다.

지역정가에서는 광주·전남 기초자치단체장 7~8곳을 우열을 가리기 힘든 초경합지역으로 보고 판세 변화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현직 단체장이 '3선 연임 제한'으로 출마를 하지 못한 영광과 장성을 비롯, 현 시장·군수·구청장이 불출마 또는 공천 탈락, 무소속 출마, 상위 선거에 출마한 영암과 여수, 광주 광산, 북구도 박빙의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지역이다. 이밖에 광주 서구와 장성, 무소속 단체장 지역인 화순과 보성, 장흥 등도 경합지역으로 분류하고 있다.

광역단체장의 경우 현재 민주당 소속인 박광태 광주시장과 박준영 전남지사가 각종 여론조사 지지도에서 여당 후보를 배 이상 앞서가고 있다.

현재 기초단체장의 소속 정당은 광주지역 구청장의 경우 열린우리당 2명, 민주당 2명, 무소속 1명이고, 전남지역 시장·군수는 민주당 10명, 열린우리당 6명, 무소속 6명 등이다. 민주당과 열린우리당 및 무소속이 양분하고 있는 형국이다.

◇열린우리당=광주시장의 경우 조영택 후보가 민주당 박광태 후보를 맹추격해 지지도 격차가 상당히 좁혀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청장은 북구와 서구의 경우 당선을 자신하고 있고 다른 지역도 경합열세로 '해볼만 하다'고 보고 있다.

전남지사는 서범석 후보가 민주당 박준영 후보를 추격하고 있으나 지지도 격차가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시장·군수 후보를 낸 16곳 가운데 담양·무안·곡성·고흥·완도 등 5개 지역은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영암도 안정권으로 분류하고 있다. 여수·광양·순천 등 3개 시 지역은 경합지역으로 보고 서부권에 비해 당 지지도가 높은 동부권에 전력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나머지 목포, 장성, 장흥, 구례, 진도, 신안 등은 경합열세라고 판단하고 있다. 기초단체장은 광주의 경우 2~3곳, 전남은 9~10곳의 승리를 기대하고 있다.

◇민주당=목표는 '광주·전남 석권'이지만 '반타작+알파'를 기대하고 있다. 광주시장과 전남지사는 다른 후보들을 20%포인트 이상 차이로 앞서고 있다며 압도적 승리를 장담하고 있다. 광주 구청장의 경우 동구와 남구, 북구, 광산구에서 우위를 점했다고 보고 있으며 서구는 경합지역으로 분류했다.

전남에선 현 단체장이 민주당 소속인 목포·여수·광양·구례·강진·해남·진도·영광을 포함 순천과 화순, 신안 등 12곳은 우세를 보이고 있으며 장성과 영암, 나주, 보성, 고흥, 장흥 등 나머지 지역은 경합 또는 경합열세지역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화갑 대표는 15일 광주 기자간담회에서 "욕심같아서는 100% 석권하고 싶지만 3분의 2만되어도 대성공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광주는 3~4곳, 전남은 15~16곳에서 승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기타 정당=무소속으로 재선 또는 3선에 도전하는 광주 광산·나주·화순·함평·보성·장흥지역 현 단체장들은 모두 자신들의 우세를 주장하고 있다. 이밖에 영광과 장성, 신안 등지에서도 무소속 후보들이 우위를 점했다고 자체 분석하고 있다.

민주노동당과 한나라당은 민주당·우리당에 비해 정당지지도가 낮아 광역·기초자치단체장 당선을 기대하기는 힘들다. 따라서 민주노동당은 '20% 이상 득표'를, 한나라당은 '10% 이상 득표'를 전략적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현재까지 비례대표를 제외하고 지역구에서는 당선자를 배출하지 못한 광역·기초의원의 진입을 늘려나가는 것이 1차적 관문이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 각 정당과 무소속 후보가 본 기초단체장 판세

	우 세	경합 또는 경합열세
열린우리당	광주 서구, 북구 담양, 무안, 곡성, 고흥, 완도, 영암	광주 동구, 남구, 광산구 여수, 순천, 광양, 목포, 장성, 장흥, 강진, 구례 진도, 신안
민 주 당	광주 동구, 남구, 북구, 광산구 목포, 여수, 광양, 구례, 강진, 해남, 진도, 영광 순천, 화순, 신안	광주 서구 장성, 나주, 고흥, 장흥, 담양, 곡성, 보성, 완도 무안, 함평, 영암
무 소 속	광주 광산 나주, 화순, 함평, 보성, 장흥, 장성, 영광, 신안	

※각 정당이 분석한 선거 초반 판세를 토대로 한 것임. 열린우리당은 나주, 화순, 보성, 영광, 함평, 해남은 후보를 공천하지 않음. 무소속은 우세지역만 표시함.

여야 4당이 5·18 26주년인 18일 광주에서 5·31 지방선거 출정식을 갖고 첫 유세를 시작했다.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 등 당 지도부와 조영택 광주시장 후보가 금남로 2가에서 유세를 하고 있다. 같은 시각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충장로에서 한영 광주시장 후보, 박재순 전남지사 후보와 함께 승리의 V자를 그리고 있다. 민주당 한화갑 대표가 박광태 광주시장 후보와 함께 이날 오후 광주공원에서 필승 구호를 외치고 있다. 민주노동당 문성현 대표 등 지도부는 이날 오전 전남대 정문 앞에서 출정식을 가졌다.〈위로부터〉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5·31 지방선거 현장

마감시간 넘긴 민주 비례대표 등록 받아주기로

○…광주시선관위는 18일 후보 등록 마감시간을 넘겨 일부 서류를 제출한 민주당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비례대표 후보 등록을 받아주기로 했다. 전수안 광주지방법원장 등 시 선관위원 6명은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민주당 광주시당측이 17일 마감시간전 e-도우미를 통해 후보 등록을 했으나, 중앙당 인증서를 마감 이후 제출해 등록 가능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었다"며 "그러나 중앙당 인증서의 경우 15일 발행됐기 때문에 정당의 비례대표 등록 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해 등록을 받아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만 등록 무투표 당선

○…함평과 진도군 기초의원 비례대표 후보 등록 결과, 민주당 후보만 등록해 무투표 당선됐다. 18일 전남도선관위에 따르면 1명을 뽑는 함평군 비례대표 후보 등록 결과, 민주당 윤앵랑, 김영종 후보만 등록해 윤 후보가 무투표 당선됐다.

역시 1명을 뽑는 진도군 비례대표도 단독으로 등록한 민주당 한승주 후보가 당선됐다.

"고향 광주 세계중심도시로"

○…조영택 열린우리당 광주시장 후보는 18일 광주시 금남로 무등빌딩 옆에서 진행된 첫 거리유세에서 "22년간 중앙정부와 경기도에서 근무한 행정경험과 지식, 기반을 토대로 광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조 후보는 "한 마리의 연어가 먼 대양으로 나가 크게 성장해 고향으로 알을 낳으러 오듯 고향인 광주를 부자도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세계중심도시로 만들기 위해왔다"며 "문화중심도시 착공이 하루빨리 이뤄지도록 모든 정성을 다 쏟을 것이며, 그렇게 하면 우리가 지금 서있는 이곳은 세계인들이 함께하는 자리가 돼 로마광장처럼 꽃피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문화광주 만들겠다"

○…박광태 민주당 광주시장 후보는 이날 12시30분 광주공원 앞에서 첫 유세를 가진 뒤 5월의 음악회, 오월 주먹밥 행사 등 시내 일원에서 펼쳐지고 있는 각종 5·18 기념 행사에 참여하는 것으로 공식 선거운동 첫 날을 보냈다. 박 후보는 이날 유세에서 "열린우리당이 무슨 염치로 다시 와서 표를 달라고 할 수 있는가. 5월 31일은 이러한 열린당을 심판하는 날이다. 5로지 3번이 1등하는 날이다"며 "시장에 당선되면 민선 3기에 마련된 기틀을 토대로 광주를 '경제광주', '문화광주', '복지광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하승완 선거사무소 개소식

○…하승완 무소속 보성군수 후보가 18일 보성읍 인사동에서 지지자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하 후보는 이날 "안정속에 미래를 가꾼다는 철학으로 군민 화합을 추구하면서 ▲사회기간시설 지속 확충 ▲농어업 경쟁력 확보 ▲문화관광산업 육성 ▲사회복지 증진 ▲투자유치 확대 ▲인적자원 개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보성=안구일기자 giahn@

"선거이후 한나라와 연대할수도…" 韓대표 발언

우리·민주당 광주서 공방전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은 18일 '지방선거 이후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서로 의견이 맞으면 공조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한화갑 대표 발언을 놓고 공방전을 벌였다.

열린우리당 우상호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5·18 학살 후계 세력과의 공조는 5·18 정신을 훼손하고 광주시민을 모독하는 발언"이라며 한 대표의 사과를 촉구했다.

조영택 광주시장 후보도 이날 첫 거리유세에서 "5·18 영령들이 지하에서 들으면 기절초풍할 일"이라며 "정신나간 사람들"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한 대표는 광주공원 유세에서 한나라당과 대연정, 문재인 전 민정수석의 '부산정권' 발언을 예로들며 역공을 취한 뒤 "우상호 대변인은 지난 2000년 5·18 기념식이 열릴 때 광주 N술집사건으로 광주영령들과 시민들을 분노케 한 장본인으로서 더 이상 5·18 광주정신을 입에 담지 말라"고 비난했다.

이에 앞서 한 대표는 지난 17일 MBC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앞으로 정치 정개과정에서 국민과 국가를 이롭게 하는 방향에서 한나라당과 일치하는 면이 있으면 같이 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